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길 열렸다

상중병원평가협의회, 제주 진료권역 독립 의결
제주, 그동안 '서울권'에 묶여 매년 경쟁서 뒤쳐져
복지부 6월 고시 추진... 제대병원·한라병원 경쟁

정부가 도내 의료기관끼리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을 할 수 있게 제주만의 독립된 진료 권역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진료권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필요한 의료기관 별 평가 그룹으로, 그동안 제주는 십 수년간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다보니 상급종합병원이 생길 수 없는 구조였다. 서울 권역에는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이른바 '빅5'를 포함해 대형병원이 즐비해 도내 의료기관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는 지난 2월 11일 제주를 서울 진료 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평가협의회는 복지부 차관이 위

원장을 맡고 보건·의료계 인사와 공무원 등 14명이 참여하는 정부기구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논의한다.

평가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수용해 제주만의 독립된 진료 권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시 용역진은 "제주는 최소 인구 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현재 제주 진료 권역을 분리하기 위한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복지부는 통상 지정기간 만료 직전년도 연말에 진료권역과 각 권역별 필요 소요병상을

함께 고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관례를 깨고 진료 권역을 올해 6월 먼저 고시하고, 소요병상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예고하기 위해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심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이 없는 한 계획대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주의 오랜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이다. 지역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차 병원 등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때 완성된다.

그러나 제주에는 3차 병원이 없어 해마다 많은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난다. 2024년 기준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도민은 14만

505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원정 진료비는 2204억원에 달했다. 의료계는 진료비 외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 경비를 다 포함하면 원정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하고, 국회의원들도 법 개정에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진료 권역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했다.

진료 권역은 고시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시엔 대통령 공약도 소용없었다.

이후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며, 새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주 독립권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도내에선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봄에 만끽하는 한라산 설경. 꽃샘추위가 찾아온 지난 7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설경을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민주당 공관위 제주지사 공천심사 결과 발표 오영훈 vs 문대림 vs 위성곤 '진검승부'

당내 경선은 4월 3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의 경선을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공천 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되며, 경선 시기는 4·3 추념일을 고려해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 심사에서 가능한 컷오프 없이 후보 모두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제주지역도 3인 모두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은 문 의원의 과거 탈당 전력에 대한 감산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가감산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기존의 가감산대로 적용된다. 변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9일) 최고위에 보고되고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4·3에 즈음해 경선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고, 경선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4월 3일 이후 치러지는 것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여러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여당 후보가 유리한 선거 구도 속에 '본선 같은 경선'이라는 점이 첫 번째다.

비슷한 배경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3명이 처음으로 경선에서 맞붙게 된 선거라는 점도 눈에 띈다. 세 명 모두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며 제8대, 제9대 제주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제주도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같은 배경을 가졌다. 국회·부미연기자

도, 제78주년 제주4·3추념식 슬로건 확정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

올해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봉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중간보고회를 열어 올해 추념식 슬로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올해 슬로건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

히다'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의 의미로 승화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물을 통해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세계와 미래세대에 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추념식에선 최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뒤늦게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고계순(77)씨의 사연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날뛰는 유가, 제주경제 직격탄 우려... 4면 / 제주, 남녀 임금 격차 27.7%... 5면

Jeju 제주시

제46회 전국경매인체육대회
2026.09.11. - 09.16.

2026 제주들불축제 상생장터

제주들불축제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주 농수특산물을 만나보세요.

농수특산물
20~50%
할인

2026. 3. 13.(금) ~ 3. 14.(토)
새별오름 일원(행사장 입구)

✓ 총 41개 부스(농수특산물 26 · 소상공인 15) 운영
✓ 먹거리 부스·시식 프로그램 확대

할인 혜택

전 품목 20% 이상 할인 판매
정상·할인가 병행 표기로 가격 신뢰도 강화
한우 등 일부 품목 최대 50% 할인

주요 판매 품목

만감류, 키무트, 생강, 레몬 등 농산물
한우·제주산 돼지고기 세트 등 축산물
갈치·옥돔·굴비 등 수산물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타 지역 특산물(익산·안동·보령·천안·고창) 참여